

전북형 저출생 대책 지역 활력 제고

저출산 심화·고령화·청년층 유출 등으로 전북 인구감소 가속화

김관영 도지사, 저출생 TF 통해 발굴대책 추진 위해 지속 노력 다짐

전북자치도가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나선 데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저출생 심화로 수도권에 제한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저출생 추세 반전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둔화시키고, 민생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려는 민선8기 전북 도정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전북만의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1일 인구의날을 시작으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저출생 대응 TF'를 구성하고, 그간 주거·일자리, 임신·출산·양육, 일·가정양립 등 주요 저출생 대응 분야별 분과 운영과 세미나·포럼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전북지역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1966년 252만 명으로 인구정점 기록 후 지속 감소하여 올해 9월 말 기준 174만 명까지 감소했다. 또한 2016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 자연감소가 가속화 하고 있고 일지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저출생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주거비용 등 결혼자금 부족이며, 미래 불안 없이 아이 낳아 기르기 위해 중요한 요건으로 집과 좋은 일지리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 의료 인프라의 부족과 생계 부담 및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 복지 사각 지대가 존재하고, 만혼화로 인해 출산

의 지가 있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출산 이후 여성 대부분(88.8%)이 경제 활동을 지속 희망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유연한 직장문화, 사회 전반의 문화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인식 조사 결과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발굴하고 저출생 TF를 통해 정책의 도민 체감도,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도는 내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업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해 예산을 확보 하고, 사전절차와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시군과 함께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차녀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저출생 TF를 통해 발굴된 대책이 도민들의 피부에 닿고, 청년들의 희망을 높이고 소중한 아이 함께기움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의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으로 전북민의 무상보육을 실현한 바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원인이 얽혀있어 이번 대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고 결혼과 자녀를 통해 얻는 행복을 미루지 않도록 희망을 주고자 한다"며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편의점·노래방 등 대상,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 사항 점검

생활안전지킴이와 청소년 문화홍보 캠페인... 내달 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수능 이후 연말의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편의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주요 도시의 대학가 주변과 시가지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전지킴이와 협력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제한(밤 10시 이후) 업소의 표시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 시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용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편의점, 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금지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불법행위 발생 시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공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9대 민생분야에 대한 신고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을 알리는 첫 관문,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UP

도, 전북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개최...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정보 교류의 장 마련

14개 시군별 관계자 총 300여명 역량 증진... 문화관광해설사 협력·화합 도모



18일 익산 웨스턴리피호텔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린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워크숍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이남호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중앙협의회장, 전북문화관광해설사회 이영숙 회장,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익산 웨스턴리피호텔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이남호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중앙협의회장, 전북

문화관광해설사회 이영숙 회장 등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와 문화관광해설사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첫날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2024년 활동을 시작하는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대표자에게 직접 해설사증을 수여하며 활동을 격려했고,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한 문화관광해설사와 시군 공무원 7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전달하

며 그 노고를 기렸다.

한국관광공사장과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중앙협의회장도 해설사 5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전북문화관광해설사 회장은 활동을 종료하는 해설사 4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강연에서는 전주대학교 송광인 교수가 '무장애 열린관광을 위한 콘텐츠 이해'를 주제로, 모든 관광객을 포용하는 해설사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이어 변주승 교수가 '조선시대 전북지역 역사' 강연을 통해 해설사들의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날 각 시군별로 열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증진대회'에서는 해설사들이 특색 있는 공연을 통해 화합을 다졌으며, 특히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술가락 난타' 공연은 큰 호응을 받았다.

이들은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 KBS 1 투데이 전북에 소개되며 오는 26일 방송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익산의 주요 유적지와 명소를 직접 방문해 새로운 해설 콘텐츠를 발굴하는 현장학습이 진행됐다. 해설사들이 지역 관광의 매력을 깊이 이해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전달할 생생한 스토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해설사들은 전북 관광의 얼굴이자 첫 관문"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해설사들이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관광산업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해설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관광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전북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우울·불안 등 어려움 겪는 도민에게 심리상담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고, 만성 정신질환 악화와 자살·자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울감,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 내역 및 처리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신청 절차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과 의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필요하므로,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와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 증상(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으로, 해당 대상자에게는 120일간 8회의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가 제공된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의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제공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위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0~30%)을 납부하면 된다.

신청후 도 건강증진과장은 "온라인을 통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바우처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검사를 지원받아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